

자연성 쓰레기 연료화 매립장 수명 5배까지 연장 '폐기물 에너지 타운' 만든다

광주시, 양과동에 2012년까지 2천억 투입

광주시가 단순 매립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자연성분을 분리해 연료화하는 발전 시설과 하수슬러지 건조·자원화 시설 등을 갖춘 '에코-폐기물에너지 타운'을 조성한다.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연간 20만 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매립장 수명을 2~5배까지 연장할 수 있어 국제유가 상승과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10일 "남구 양과동 광역 위생매립장에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모두 2천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2년까지 '에코-폐기물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곳에는 반입된 폐기물을 자연성과 유기질, 무기질로 분류하는 폐기물 선별·분리시설(MBT), 자연성 폐기물로 만든 고휘연료(RDF)로 전기를 생산하는 고휘연료 전용 발전시

설, 하수슬러지(찌꺼기) 건조·자원화 시설 등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한 데 모아 설치하게 된다. 자원화시설 주변에는 환경교육홍보센터와 생태연못, 수생식물원 등 자연친화적 생태·체험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현재 매립되는 하루 약 400t의 생활폐기물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자연성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연료로 사용할 경우 매립지 수명(현재 30년)이 2~5배까지 늘어나 60~1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휘연료 전용 발전시설을 통해 시간당 10MW 이상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이 때 얻어지는 열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인근 택지지구 지역난방에 이용할 수 있어 연간 20만 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온실가스 11만t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침출수로 인한 2차 수질을 생산하는 고휘연료 전용 발전시

사전에 선별·건조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의 개선성도 낮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예상된다.

민간 투자 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될 이 사업에는 현재 포스코 등 3~4개 대형 업체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시는 이 달중 참여의향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올해 말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예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말까지 민간사업자 선정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0년 7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최현주 환경복지국장은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절실한 만큼 광역 위생매립장을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겠다"며 "이는 20~30년 후에 새로운 매립장 확보 문제로 많은 사회적 갈등과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0일 금남로 4가 지하철 역사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이 '구강 보건의 날 기념 백일장'에서 입상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한혜기자 choi@kwangju.co.kr

'구강 보건 백일장' 입상작 전시회

금남로 4가 지하철 역사 14일까지
글짓기·포스터·그림 40여점 전시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배용)는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닷새 동안 금남로 4가 지하철 역사 광장에서 구강보건 백일장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작품은 지난달 17일 광주지역 유·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구강 보건의 날 기념 제6회 백일장'에서 입상한 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림 등 40점이며, 전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전시회에서는 지난 백일장 대회에 출품된 작품 중 구강건강의 중요함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선발해 최사(어·그림·음악 초 3년)와 외 30여명의 입상작을 선보인다. 전시된 작품은 작품내용 및 심사평을 함께 액자로 제작해 관람객들에게 작품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전시회에서는 서강정보대학 치과위생과 학생들이 실습시간에 만든 구강보건교육자료 30점을 함께 전시되고, 치과의사회는 전시회에 다녀가는 시민들에게 칫솔과 치약 등의 선물도 제공한다. 한편 백일장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구강 보건의 날'인 지난 9일 5·18기념문화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역위생매립장 인근 180ha 수목원 조성

광주시 2015년까지... 시민 휴식·자연학습장 활용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에 대규모 산소공급림(수목원)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10일 "남구 양과동 광역 위생매립장 주변 180ha에 2015년까지 2단계에 걸쳐 모두 320억원(국비 150억원, 시비 170억원)을 투입, 산소공급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대규모 수목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로 했다"고 밝혔다.

1단계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180억원을 들여 30ha(9만평)에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종 증식 및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전시시설과 양묘장 등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매립장 주변 10ha를 이미 매입했다.

시는 특히 수목원에 주요 조경공사용 수목을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체

계를 갖춰 조경공사에서 전체 비용의 50~60%를 차지하는 재료비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는 140억원을 들여 주변의 산림청 도시림 조성용 산림서비스림 150ha를 매입해 생태관찰로와 편의시설, 수생식물원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수목원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기본·실시설계역역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

박광태 시장 서운함 토로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 실패 이후 2015년 대회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박광태 시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책임론과 예산 공개 요구 등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1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법 규정도 모른 채 예산 공개를 요구하는 등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바엔) U대회 유체에 다시 나서라고 해도 차라리 안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복잡한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U대회 예산은 여수나 평창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

"U대회 실패는 소중한 경험 정치적 의도 갖고 비판 말라"

걸 가지고 비판부터 앞세우고 있다"며 "건전한 비판은 수용해야겠지만 정치적·감정적 의도를 갖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일부에서 시에 예산공개를 요구하는 데 시는 일부 예산을 출연했을 뿐 모든 집행은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법에 따라 정당한 뒤 감사를 받게 된다"며 "특히 유치위는 순수 민간법인으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에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세계가 광주를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실패에 대한 책임만 묻는다면 누가 창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느냐"며 "나태하고 의도적인 실패는 용서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실패했다면 용서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여수도 두 번 도전했고,



평창은 3수를 하고 있다"면서 "도전 없는 성공은 없다. 이번 실패를 소중한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 1등 광주 건설을 위한 앞으로의 도전에 당당히 이겨내자"고 역설했다. 한편 박 시장의 이같은 언급이 U대회 재도전 포기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광주시 관계자는 "재도전 여부는 시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이미 밝혔다. 현재로서는 재도전 포기가 아니라 정치적·감정적 비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꼭내영교육학

529-0090 개강 7월 4일

자격증은 취득하고 싶어요

023164-0095-0

ANYCHE CHAIR

거품과 합재로 마감으로된 탁자 현편 생감합체 - 목감체시체

Anyche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유일정공(주)

023164-0095-0